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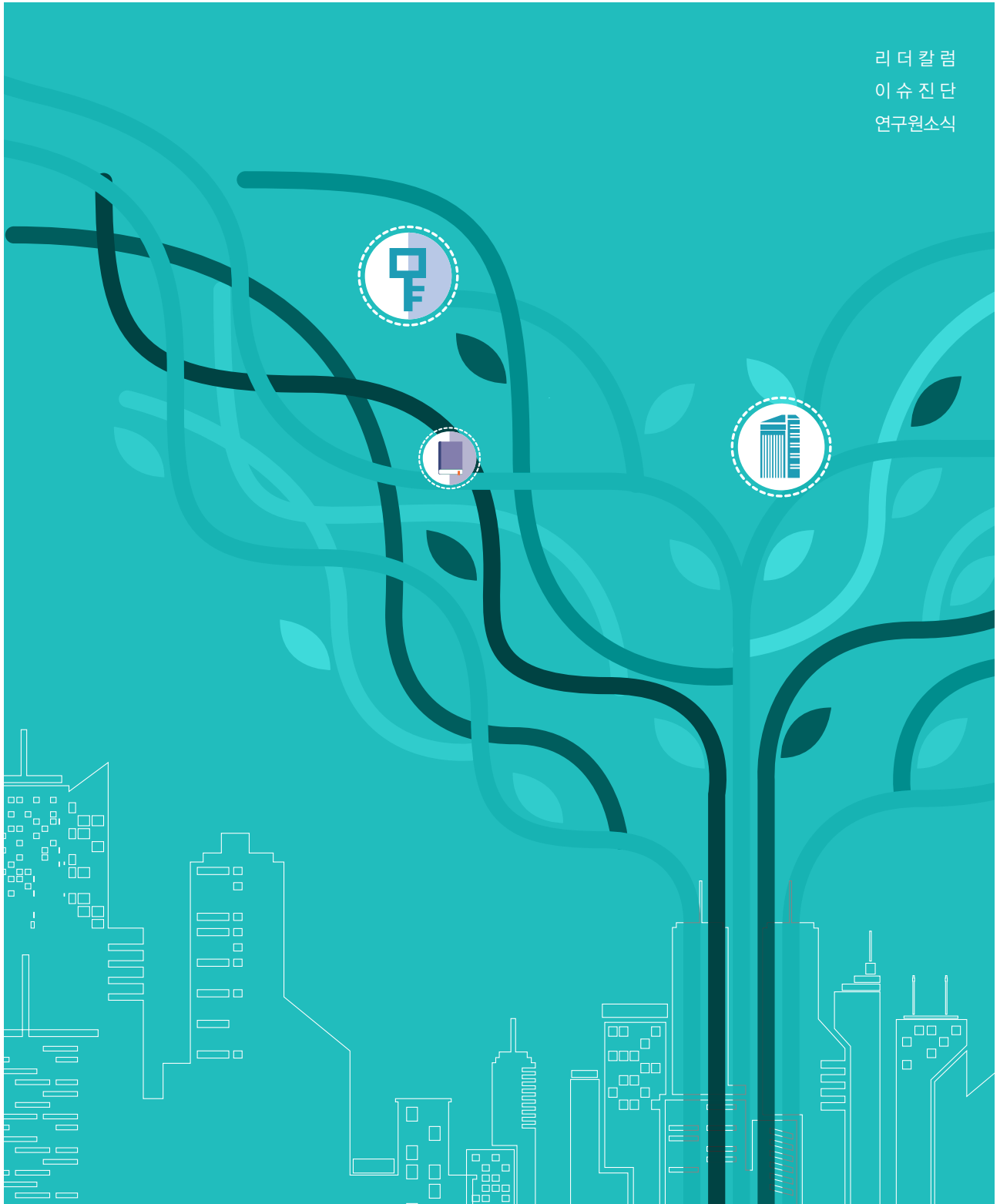
45호 2016년

2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45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박상우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리더 칼럼  
이슈 진단  
연구원소식





##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박 상 우 입니다.

꽃샘추위가 잠시 기승을 부리지만 “우수경칩에 대동강 풀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제 곧 봄기운이 돌고 초록이 싹트는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울산광역시회 총회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총회를 방문하여 회원사 대표님들을 비롯한 업계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의 장에 참여하여 전문건설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원의 수장으로써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연구원이 전문건설업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시·도회 총회 순방에서 청취한 고충사항을 포함하여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시공참여자 대체제도 도입, 업역분쟁 발생분야의 시공범위 조정 등 현실과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업 성장정체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해외시장 진출 중장기전략을 마련하고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구원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성과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대외홍보는 물론 시·도회, 업종별협의회 등 업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긴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겠습니다.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하여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학회·연구기관·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연구원의 대외위상을 확립하고, 정부 정책과제와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개원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건설산업의 싱크탱크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넷째, 취약분야 연구 인력을 보강하여 공정거래·업역문제 등 전문건설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분야를 다양화하는 한편, 신시장 개척,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건설산업 전체의 장기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발전이 곧 건설산업의 발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항상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원의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더욱 성장하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박 상 우

## 중소건설업체 성장과 SOC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부의 2016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로 공공건설시장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5%가 줄어든 23조7,000억원으로 책정되었고, 국토교통부 예산도 전년 대비 2.6%가 감소한 21조9,392억원으로 책정되었다. 항공·공항 부문 예산은 전년에 비해 20.7%가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10.8%가 감소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SOC 투자는 국가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복지와 삶의 질, 지역경제발전, 국민의 안전 확보 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특히 생활밀착형 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인프라”에 해당되는 소규모의 지역기반 시설들로서 각 지역의 중소·전문건설업체 및 지역민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경제기반 인프라와 국토보전 인프라에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생활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생활인프라의 부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고, 고비용 생활구조를 야기하며, 도심기능이 쇠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유발되어 왔다.

생활밀착형 SOC 시설은 주거, 교통, 복지, 여가, 안전 부문으로 크게 구분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시설 중 ‘노후 시설물 재난대비 개보수’, ‘하천·제방·수로 정비’ 등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와 ‘노후 주택 등 주거시설 정비’, ‘상하수도 개보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 및 주거시설에 대한 지역별 투자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전문건설업체는 각 지역에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인프라의 실질 시공 주체였으며, 인프라의 노후화 및 시급한 수요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민들과 중소·전문건설업체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공공투자 패러다임을 확고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SOC 투자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혼잡개선·생활인프라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이 조속히 실질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활밀착형 SOC 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실현의 중대한 수단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일한 연구위원(ihyu71@ricon.re.kr)





## 재정조기 집행과 재정절벽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1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종 수요자의 '체감도'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1분기 중 조기집행은 144조원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96조원과 42조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도 6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경제성장을 저해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20대 총선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거가 있었던 해는 재정집행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성장은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는 국내소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소비와 연계되는 고용유지와 고용을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최종 수요자가 받는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기능이며, 이런 수단을 통해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체감도'를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 경제상황과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상황 등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게 된다. 이런 영향으로 최종 수요자인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파급시키게 된다.

최근 경기상황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재정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SOC)과 임대주택 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역할을 수단으로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우려되는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건설투자는 고용유발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건설투자는 2분기는 전기 대비 4.7% 감소, 3분기는 전기 대비 2.2%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3분기는 다시 전기 대비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2국가재정운영 및 국토교통부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재정 집행은 항공·공항 및 물류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공급은 민간의 역할이 크고, 2015년 분양시장이 전례 없이 확대되어 공급조정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목건설 중심의 재정 집행이 1분기 중 이루어지고 2분기까지 재정의 60%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주택시장의 공급조정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와 4분기는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경제안정화'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정책 수단 중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한다. 3분기 이후 하반기는 공공과 민간 모두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집행 과정에서 전기의 건설투자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2월 22일, 제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 업무추진계획”과 “연구원 기능강화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자문위원의 조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연구원은 연구활동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자문위원으로 토목분야의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건축분야의 신동우 아주대학교 교수, 도시지역계획분야의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경제분야의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경영 및 컨설팅분야의 박기준 키투에스 대표를 위촉하였다.
- 연구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건설의 외연확대와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2016회계연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2월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기능강화 방안 보고와 더불어, 2015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새로운 이사진과 감사에 선임장이 수여되었다.
- 본 이사회회의 선임 및 연임을 수락한 임원(이사 및 감사)은 임기동안 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올바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출직 이사: 김영운 토공사업협의회장, 도재영 대구광역시회장, 송성홍 광주광역시회장, 이광한 전라북도회장, 이선우 충청북도회장, 조광일 상하수도공사협의회장 / 감사: 김광수 광남토건 대표)
- 박상우 원장은 2016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에 핵심역량을 집중하여 총 30여건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업계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 우리 연구원은 2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산업 발전과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현장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활동과 함께 건설제도 및 정책·건설업 경영·건설금융 및 보증·건설생산성 향상 등과 관련된 정책개발 등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전문건설업을 대표하는 건설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인 우리 연구원과 수도권 도로 및 하천 건설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지속적인 협력과 유대관계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발굴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MOU 체결에 따른 우선 협력사업으로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및 수령, 하도급대금지급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으로, 연구활동과 정보교류 등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양 기관이 함께 win-win하기를 바란다.

